

북스

Books

먹자 골목엔 '원조 식당' 왜 난립할까?

게임의 기술 김영세 지음

같이 담을 넘던 두 명의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자백할 경우 각각 3년형의 징역을 살게 되고, 둘 다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한 사람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할 경우 자백한 사람은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풀려나지만 부인한 강도는 과징죄가 추가돼 5년형을 받게 된다.

이것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 부른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백과 부인했을 때 대우가 180도 바뀌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각각 3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들이 잡히기 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자고 굳게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난 5년 씩어라 난 기소유예로 풀려나거든'이라는 생각으로 둘 다 범행을 자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사람들이 각각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상태가 전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준다. 또 약속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교훈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런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영세씨는 '게임의 기술'을 통해 '게임이론'을 설명한다. 게임이론은 그 탄생의 토양이 된 경제학에서 더 빛을 발한다. 경제인의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정통 경제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먹자 골목에는 수많은 '원조' 식당들이 있다. 이 중 장사가 잘 되는 집이 가장 맛있는 집이라는 명제는 경제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맛보다 손님이 많은 집을 가거나 오래 전부터 다녔던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당 업주들이 '원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식당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실력보다 평판을 중시하는 이들의 행동은 '진화 게임(evolutionary game)'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전체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데다 판단력에도 한계가 있어 대개 자신의 바로 앞 사람 혹은 주변인들의 행동으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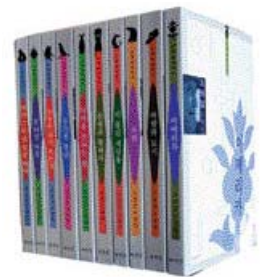
이런 예는 또 있다. 식당의 틈을 넣어두는 유리병에 1천원짜리가 하나 들어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빈 병보다는 돈이 들어있는 병에 더 손이 가는 것이다. 저자는 이 밖에 다양한 경쟁과 갈등 상황을 게임의 틀로 분석하고 전략의 기술을 보여준다. 소주 전쟁에 담긴 갈등과 협조 체계, 할인마트가 주장하는 '최저가 보장제도'의 진실,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는 이유, 부동산 압박기에 담긴 전략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예로 들며 '한국형 게임이론'을 제시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식당 업주들이 '원조'임을 강조하는 것은 왠지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남대문의 식당 골목.

'소설 르네상스' 시리즈

1차분 12권 출간



한국 문학의 부활을 꿈꾸며 시작된 '소설 르네상스' 시리즈 1차분 12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1970~80년대는 소설이 지성의 전위이자 출판 시장의 선두 주자였으며 날카로운 시대정신과 함께 새로운 상상력으로 독자를 흡입했던 '르네상스'였다.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들의 1970~90년대 출간된 첫 작품집을 새로운 해설과 함께 복원하는 작업은, 그래서 '소설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서정인의 '가위', 이청준의 '별을 보여드립니다', 유순하의 '내가 그린 내 얼굴 하나', 조혜일의 '아메리카', 이승우의 '구 평복 씨의 바퀴벌레', 이문구의 '이 풍진 세상을' 등 최고 작가의 열정이 담긴 첫 작품집을 통해 한국 문학의 힘과 위엄을 확인할 수 있다. <책세상·각 권 9천~1만3천500원>



살아있음의 기쁨과 슬픔

어느 불면의 백작 부인을 위하여 강은교 지음

1972년 스물 일곱의 임산부였던 시인 강은교는 세수를 하다 쓰러졌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통보 받고 생사를 떠나며 투병하던 그녀는 제왕절개로 1.4kg의 쌍둥이를 출산했다.

힘든 병원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그녀에게 더 없이 밝은 햇살이었지만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7달된 한 아이를 가슴에 묻어만 했다.

시인 강은교는 산문 '투병기'를 통해 '죽음의 날개가 스쳐 지나간 자에게는 전에 중요해 보였던 것도 이미 중요하지 않다'는 앙드레 지드의 말을 인용하며 '살아있음의 기쁨과 슬픔' '운명'과 '신생' 등 예전에 미처 풀려나지 않았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허무집' '어느 별에서의 하루' 등의 시인 강은교(동아대 교수)씨가 펴낸 산문집 '어느 불면의 백작 부인을 위하여'

는 40년 동안 시를 써온 한 시인의 내밀한 마음 속 풍경과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책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산문 중에서 22편을 엄선해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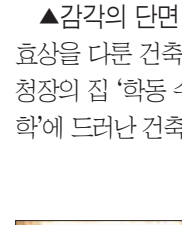
책은 4부로 나뉘어져 있다. 1, 2부에서는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거나 소소한 일상 중의 사색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한다. 동물원, 아파트의 아이들, 꽃, 실 등이 글의 소재가 되었다.

다소 긴 산문인 '죽음을 '기계를' 2개의 글로 이루어진 3부는 '오랫동안 잊으려 애썼던' 아버지의 죽음, 젊은 여자의 통곡으로 기억되는 물에 젖은 젊은 청년의 마지막 등을 통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물화(物化)의 세계에서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한 자신의 신체에게 편지를 띄운다.

4부에는 시와의 첫 만남, 아버지와 시에 얽힌 이야기,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등 시와 관련된 단상을 담았다. 표제작은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아름다움의 본질, 소리의 위대성 등을 느꼈던 감정을 담고 있다. 약혼식 사진 등 그동안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 사진들도 만날 수 있다. <이름·9천700원>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천상의 미술과 지상의 투쟁=명대대 미술사학과 신준형 교수가 종교문화의 하나로 본 미술사를 정리했다. 우리가 16~17세기 '명화'라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성화(聖畵)다. 이들의 탄생 과정과 뒷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회평론·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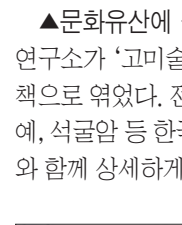
▲감각의 단면=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배형민 교수가 건축가 승효상을 다룬 건축 비평서. 저자는 승효상이 건축한 유희준 문화재청장의 집 '학동 수졸당' 등 건축물 뿐 아니라 에세이집 '빈자의 미학'에 드러난 건축세계 등 인간 '승효상'을 조명하고 있다. <동녘·3만8천원>



▲착한 이웃 따뜻한 세상=극빈층을 위해 설립된 요셉의원을 후원 중인 월간 교양지 '착한이웃'에 실렸던 유명인 44명의 글을 모았다. 김수환(추기경)·강은교(시인)·법정(스님)·괴천득(수필가) 등이 무료로 게재했던 에세이가 실렸다. <착한이웃·9천원>



▲정신분석의 은밀한 시선=정신과 의사 박시성 교수가 정신분석과 라캉을 통해 40편의 영화 읽기를 시도한다. 저자는 '말쭙한 드라이브', '장화, 홍련', '말죽거리 잔혹사', 등 영화 속 등장인물과 이미지의 정신분석적 사고를 쉽게 설명한다. <효형출판·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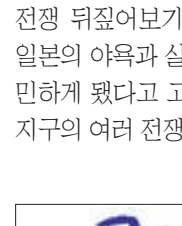
▲문화유산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지난 2005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미술의 과학'을 주제로 열었던 10회의 특별강좌를 책으로 엮었다. 전통 달력, 우리 배, 목재 문화재, 얼음골, 금속공예, 석굴암 등 한국 문화유산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를 그림·도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레시·1만5천원>



▲감기='레고로 만든 집'의 소설가 윤성희의 세번째 소설집.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문학지 등에 발표했던 단편 소설 11편이 실려 있다. 저자는 범부들의 평범하고도 따뜻한 일상을 속도감이 느껴지는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창비·9천800원>



▲나는 21세기 이념의 유목민=평양사범대 노문학과 교수 자격으로 러시아사범대 교환교수를 하다 남한으로 망명한 김현식 교수가 예일대학 북한학 교수로 3년 동안 지내면서 쓴 편지를 모았다. 북한 로열패밀리에 대한 호연이 생생하다. <김영사·1만3천원>



▲소년병, 평화의 길을 열다=일본인 비평가 사토 다다오의 전쟁 뒤조어하기. 태평양 전쟁에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저자는 일본의 야욕과 실체를 알게 되고, 전쟁의 원인과 세계 평화를 고민하게 됐다고 고백한다. 일본의 전쟁 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지구의 여러 전쟁을 다각도로 살핀다. <검독소·1만1천원>



▲가족='아버지의 작가' 김경현이 4년 만에 내놓은 신작 장편소설. 아버지의 위상이 떨어지고, 세대 간 단절이 부르는 소통 단절로 붕괴되고 있는 가족의 현주소를 묘사하고 있다. 삼부 인생 아버지와 그를 애증하는 아들, 그리고 어머니,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삶의 이면이 읽힌다. <지음과모음·9천700원>

MODISH 가구나·소품·테이블로 완성되는 현대적 생활

모디쉬갤러리 Sale

30% 할인

모디쉬갤러리 중구점: 010-225-3001-2 | 금호빌딩 2층 | 010-225-8774

출장뷔페 · 도시락남품 · 위탁급식

- 회갑, 칠순, 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 교회 결혼식 음식, 장년회합식
- 개업식 기념식

파티외식신입

- 시와 시녀 출장전문
- 체육대회·아우터
- 식회 식사 무료지원
- 연회장 주차장 준비

8월12일 | 010-225-0005-7